



기술표준뉴스

업무효율화경진대회 최우수상 표창수여



지식경제부는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업무추진방식의 정착을 위해 2008.9.1(월)14:3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기표위, 무역위, 전기위,우성사업본부 등 직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메뉴얼 만들기 및 인베리기(1부)와'타운미팅을 통한 분세해결'(2부)로 나누어 부내 8개 실별로 그간 성과를 발표하는 「업무효율화

경진대회」를 가졌다.

기술표준원은 동 대회 1부에서는 박상삼 안전관리과장이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2부에서는 "자원순환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표준·인증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표준기술기반국 정의식 과장이 발표하여 장려상을 획득하였다.

이와같이 기술표준원은 동 경진대회 두가지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상려상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다시한번 기술표준원 직원이 인치 단결한 모습을 보였고, 또한 평소 업무추진의 효율성에 있어 지식경제부 어느 부서보다 탁월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부서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청소년 표준 올림피아드 개최

기술표준원은 청소년기부터 표준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생활 속 표준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한국표준협회, 한국기술교육단체총연합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8월 13부터 2일간 광주 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 표





준 올림피아드』를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올 6월말에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활주변에서 표준화되지 않아 불편한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라는 주제로 예선과제를 공고하여 참가팀을 접수받은 바 있다.

이번 표준 올림피아드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3명씩 한 팀을 이루어 예선과제를 제출하였으며, 중등부는 101팀, 고등부는 111팀이 예선에 참가하는 등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예선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의 표준 불일치로 인한 낭비 및 구매 불편, 핸드폰용 이어폰의 표준 차이로 인한 접속 불편, 신발이나 옷의 치수표기 부정확 등 생활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표준화 사례를 상당수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예선과제 내용은 향후 국가표준화 추진 등에 참고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부터 신설된 고등학교 부문에는 민족사관고, 명덕여고, 운산상업고, 한성과학고, 청심국제고 등 전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예선에 응모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이끌어 갈 꿈나무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예선과제 심사 결과 중등부 40개팀과 고등부 40개팀을 본선 진출팀으로 확정하였다.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팀들은 최구슬을 활용해 표준화된 시계를 제작해 보고, 일정한 규칙을 지닌 표준화된 블록을 개발하여 구조물을 제작하는 과제를 해결하게 되며 우수한 아이디어로 과제를 해결한 팀들에게는 지식경제부 장관상 등의 포상을 실시 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청소년 표준 올림피아드를 통해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표준을 체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강화될 표준 전쟁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앞장 설 꿈나무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로 예선과제 및 본선과제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고, 아시아권으로 참가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제적인 표준화 경진대회로 행사의 위상을 격상시킬 계획이다.

08 추석대비 계량기 특별 점검

기술표준원은 계수용품 및 일반생활용품의 활발한 구매가 예상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주요 점검대상은 세수용품 거래가 많은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이며, ▲저울의 정확도 ▲근, 관 등 미법 정계량단위 사용여부 ▲저울변조여부 ▲검정 및 정기검사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군·구를 통해 「세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상승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가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구 계량 담당공무원들간의 교차 점검도 병행해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추석절 저울류 특별점검을 계기로 불법 저울류 사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년도 제2회 신기술 (NET) 인증서 수여



기술표준원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굴곡 미세구조 전열판을 이용한 판형 열교환기 제조기술」등 40개의 새로운 기술을 2008년도 제2회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선정하고, 8. 26(화) 16:0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양재동 소재)에서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이날 (주)엔에치이(는 티타늄 및 스테인레스 막판(薄板)을 이용하여 「이중굴곡 미세구조 전열판을 이용한 판형 열교환기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신기술(NET)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기존의 열교환기에 비해 20%이상 효율 증가로 인하여 원자재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에너지절비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실현하게 되었고, 삼성SDI(주)는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포토마스크 없이 미세 패턴을 노광하는 「대형 디스플레이용 SIM 소자를 이용한 Maskless 노광기술」을 개발하여, 고가의 포토마스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제품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패턴의 모양을 손쉽게 바꿀 수 있어 보다 편리하고 유연성 있게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 SLM(Spatial Lighter Modulator): 공간광변조기

또한, 두산중공업(주)에서 「핵연료 자동감지 및 원격감시를 통한 핵연료 취급장치 자동제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원자로 핵연료의 인출 및 재장전 작업에 사용되는 핵연료 취급장치 제어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수입대체 효과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되었다.

이번에 신기술(NET)로 선정된 인증기술은 124개 기술이 신청 접수되어 1차 서류·면접심사 및 2차 현장 심사를 통하여 이들 예정기술로 공고하

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이의조정 심사)과 3차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이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기술 20개, 대기업 기술 14개, 공동개발 기술 6개로 모두 40개 기술이다.

계	분야별 신기술					
	전자·전자	정보통신	기차·수송	우주·항공	화학·생명	건설·환경
40	8	6	15	1	5	5

반도체장비 안전표준화 전문가 워크숍



기술표준원은 반도체생산 세계 3위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반도체장비의 국산화율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반도체장비 표준화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중이며, 8월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반도체장비 안전 표준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반도체장비 표준화 5개년 계획」은 2015년 반도체장비 국산화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계획을 표준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비 성능평가, 용어 및 안전 등 35종의 표준을 개발·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10종은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장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삼성전자(김현석 과장), 하이닉스(임금묵 차장)에서 각각 자사의 반도체장비 안전기준 현황을 발표하고, TV 라인란드코리아(심덕섭 본부장)에서 해외의 반도체장비 안전규제 동향, 한국산업안전공단(정재종 소장)에서 반도체장비 안전인증제도(S-Mark)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으며,

지난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반도체장비 안전 지침(안)에 대하여 한국안전학회 최기홍 교수의 발표와 함께 산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반도체장비 표준화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표시 등 쉬운 항목부터 점차적으로 통일하여 국내 개발 반도체장비의 표준화를 완성시킴으로써 국내산 반도체장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 기술표준 2008.9